

에볼라바이러스병

(분디부교형)

핵심 궁금증 한 번에 이해하기!

국내 유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?



어떻게 감염되나요?



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?

✓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는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?


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7가지에 대해 답해 드립니다. 감염경로·증상부터 여행 시 주의사항까지 알려 드릴게요.

Q1.

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?

사람에게 에볼라바이러스병을 일으키는 여러 바이러스 종류 중의 하나로, 처음 발견된 **우간다 분디부교(Bundibugyo) 도시 이름에서 유래**되었습니다.

2018년~2020년 동일 지역에서 자이르(Zaire) 에볼라바이러스가 대규모로 유행하였으며, 이번 사례는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로 밝혀졌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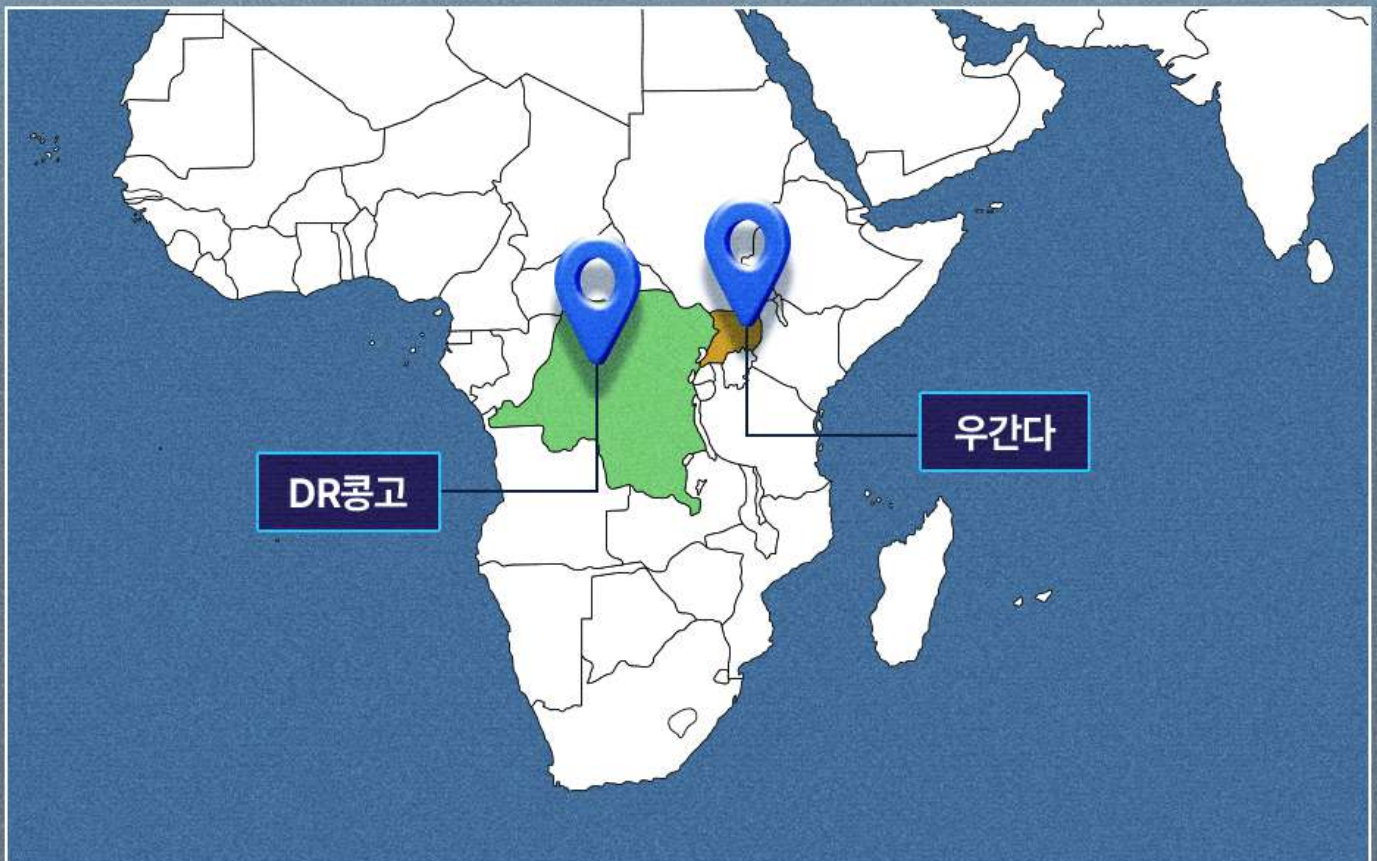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2026년(이번 사례) | 2018년~2020년 |
|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바이러스 종류 | 분디부교 | 자이르 |
| 발생 지역 | DR콩고 이투리 주 시작, 북키부·남키부 주로 확산 중 | DR콩고 이투리·북키부 주 |
| 유행 규모 | 101명 환자 발생(사망 10명) *의심사례 904건 추정 (5.25. 기준 잠정 수치로 변동 가능) | 약 3,300명 발생 (사망 약 2,270명) |
| 치명률 | 30~50% | 최대 90% |
| 백신/치료제 | 없음  | 있음 |

Q2.

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(분디부교형)은 어디에서 유행하고 있나요?

2026년 5월초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**DR콩고 북동부 이투리 주**에서 최초 발생하여 보고되었으며, 인근 지역인 **북키부 주, 남키부 주 등**에서도 발생 중입니다.

또한, 우간다에서도 DR콩고로부터 유입된 확진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.



Q3.

'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(PHEIC)'은
무엇인가요?

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인가요?

전세계적인 유행을 의미하는 **팬데믹 상황은 아닙니다.**

다만, 세계보건기구(WHO)는 이번 아프리카 중심의 에볼라바이러스병(분디부교형) 유행에 대한 아래 위험평가를 통해 5월 17일 '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(PHEIC)'을 선언하였습니다.

-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
- 향후 상황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
- 국가 간 확산 위험이 있을 경우
- 여행 또는 무역을 제한할 정도로 위험이 큰 경우

Q4. 국내 유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?

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(분디부교형) 유행은 **DR콩고 이투리주 및 인근(접경) 지역 중심**으로 발생 중입니다.

다만 에볼라바이러스병은 **혈액·체액 접촉으로 전파되는 특성**이 있고, 발생지역과 국내 간 인적교류도 극히 제한적이므로 **단기 내 국내로 직접 유입 및 지역사회 추가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**되고 있습니다.



Q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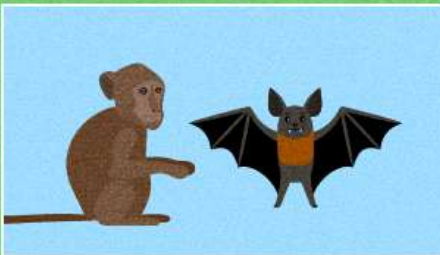
에볼라바이러스병(분디부교형)은 어떻게 감염되나요?

에볼라바이러스병(분디부교형)은 감염된 동물(박쥐, 원숭이 등)과 직접 접촉하거나, 환자·사망자의 혈액·체액* 등에 접촉하는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.

* 소변, 침, 땀, 대변, 구토물, 모유, 뇌척수액, 정액 등

따라서 유행국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방문시에는 감염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
에볼라바이러스병(분디부교형) 감염 경로



감염된 동물 → 사람

과일박쥐, 원숭이, 고릴라, 침팬지 등



감염된 사람 → 사람

- 환자를 돌보던 가족
- 장례식 참석자
- 의료환경에서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

Q6.

에볼라바이러스병(분디부교형)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?

발열, 피로감, 심한 두통, 복통, 구토 증상을 보이며 이 외에도 설사, 근육통, 발진, 원인불명 출혈(이유를 알 수 없는 멍·출혈) 등이 감염 후 2~21일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에볼라바이러스병(분디부교형) 증상



발열



두통



복통



구토



설사



근육통



발진



멍·출혈

Q7.

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?

현재 DR콩고 및 우간다에서 유행 중인 에볼라바이러스병(분디부교형)에 승인된 백신과 치료제는 없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지만, 해외방문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.

- 아픈 사람과 접촉 자제
-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-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
- 의료기관 방문 및 장례식 참석 자제
 - * 참석 필요시 개인보호구 착용 (특히,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사망자 및 의심자 접촉 금지)
- 야생동물 직접 접촉 및 섭취 금지 (과일박쥐 및 원숭이 등)

해외방문 시 에볼라바이러스병(분디부교형) 예방수칙



아픈 사람과
접촉 삼가기



비누로
30초 이상
손 씻기



오염된 손으로
얼굴 만지지
않기



의료기관
방문 및
장례식 참석 시
개인 보호구
착용



야생동물
직접 접촉 및
섭취 금지

Q8.

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
(DR콩고, 우간다, 남수단, 르완다, 에티오피아)을 방문한 입국자는,
Q-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
입국 후 21일 이내 의심증상이 있다면
의료기관 방문 전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·신고 하시고,
진료를 받을 경우 해외방문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



질병관리청이 알려드립니다!

질병관리청은
최근 DR콩고 및 우간다의
에볼라바이러스병(분디부교형) 유행 상황과 관련하여
해외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,

위기경보 '관심' 단계 발령,
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및
의심환자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
검역·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질병관리청은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
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겠습니다.